

- : Michel Bauwens, Nathan Schneider
- : [“Everything for everyone: Michel Bauwens interviews Nathan Schneider”](#) (2018.09.10) / [Attribution-ShareAlike 3.0 Unported](#)
- :
- :
- : 가

P2P	[	]	2014
FLOK	(	가	) 가
[FLOK	“Free/Libre Open Knowledge”	]	(Trebor Scholz)
(Boulder)			
	□(Everything for Everyone)		

?

가

가

(Thank You, Anarchy)

2012 2013

가 가 가 가  
가

가

가

가

가

?

가

가

가

2014

(OuiShare)

(Shareable)

(Neal Gorenflo),

P2P

가

가

가

가

2014

가

(New School)

가

가

가

? 가

?

가

가

, 가

가

가

, AP

가

가

가

OS 가

가

( )

가

가

가

가

'FLOK'  
?

가

FLOK

가 ,  
가 .

?

?

가

(Clare of Assisi)

가

가

. 20

(John A.

Ryan)

(Albert J. McKnight)

(Federation of Southern Cooperatives)

(José María Arizmendiarieta)

가

‘ 가

? 가

?

[ ‘ 가 , 가 ]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

---

가

( )

---

- P2P [Commons Transition and P2P: a Primer](#)  
16 .
-

# 가치 창출의 새로운 생태계

커먼즈 기반의 피어생산(peer production)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. 지식, 코드, 디자인의 공유된 커먼즈 주위에 세 개의 기관이 있다. 생산 공동체,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, 그리고 지원단체이다. 이 생태계는 풍요로운 환경에 가루받이를 하는 식물로 그려질 수 있다.

## 디지털 커먼즈

식물의 꽃과 줄기는 커먼즈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경합적, 심지어는 환경합적 자원을 나타낸다. (사람들이 자원을 끌어다 쓰면 쓸수록 자원은 더욱 강화된다.) 이 커먼즈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확대되고 변경되고 그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다.

## 커먼즈 지향 기업들

지식의 커먼즈로부터 가루받이를 하는 벌들의 공동체는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(Commons-oriented Entrepreneurial Coalitions)을 형성할 수 있다. 이들은 공통의 자원의 주위에서 시장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커먼즈를 산출하는 공동체의 생계를 확보하는 한편 추출적이 아닌 생성적(generative) 실천들을 통해 모양을 풍요롭게 만든다.

## 생산 공동체

생산 공동체는 생태계를 먹여살리는 풍요로운 토양이다. 기여자들이 바로 영양소들로서 프로젝트를 그리고 연계 시스템들을 살지게 한다. 자원자들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든 기여자들 모두가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한다.

## 지원단체

지원단체(for-benefit associations)는 생태계를 담아 보호하는 든든한 단지이다. 그러나 커먼즈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지는 않는다. 이는 풍요 지향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단체로서 기여하는 공동체들과 기업가연합으로 하여금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(common-based peer production)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, 특수한 라이선스를 통해 커먼즈를 보호하며 그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.

이 가치 창출의 생태계 전체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다. 이 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파수하고 보호한다.

\*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작성한 Commons Transition and P2P: a Primer에서 16면의 그림 설명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.

---

# P2P ( )

---

- P2P [Commons Transition and P2P: a Primer](#)  
8-9 .
-





# 커먼즈와 P2P란?

## 커먼즈란:



자원의 장기적 파수(把守)를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한다.

자기조직화된 체계로서 이를 통해 공동체들이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최소로만 의존하면서 자원을 (소진되는 것과 다시 채워지는 것 모두) 관리한다.



종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종종은 시장과 국가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방식으로 가치를 생성하는 경제(와 삶)의 한 부분이다.

우리가 물려받거나 함께 창출하는 부는 감소되지 않거나 향상된 상태로 우리 후손에게 넘겨져야 한다.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, 사회 기반시설, 문화 산물들과 전통, 그리고 지식이 포함된다.



##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!

커먼즈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:

### 자원



자원의 주위에 형성된 공동체



자원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단의 규칙들



## P2P란:

인간의 네트워크들에서 일어나는  
위계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유형의  
사회적 관계들.



이 관계들의 규모 확대와 광범한 사용을  
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시설

P2P는 위 두 측면 위에 구축된  
새로운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한다.



P2P는 인간과 자연을 위해 가치를 생성할 수  
있는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잠재력을  
창출한다.

## 커먼즈와 P2P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?

P2P는 커먼즈에의 기여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으로서 기능한다. P2P 는  
커먼즈에서 특수한 '무엇'(자원), '누가'(공동체), '어떻게'(규칙들)의 관계를 최적  
화하는 조건들을 창출한다.



\*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 
작성한 Commons Transition  
and P2P: a Primer에서 8-9  
번의 그림설명 텍스트를  
우리말로 옮긴 것이다.